

국제 RE100 동향과 단기 전망¹⁾

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공지영 부연구위원(jkong@keei.re.kr)

- ▶ RE100은 기업이 전력소비량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, 2024년 7월 기준 메타, 구글, 애플 스타벅스, 삼성, 현대, LG 등 433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함.
- ▶ 2022년 기준 RE100 회원사의 전력소비량은 481TWh로, 이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50% 수준임.
- ▶ BNEF는 2030년 RE100 회원사의 전력 수요를 650TWh로 전망하고, 재생에너지 비중은 76.8%인 499TWh로 전망함.
- ▶ RE100 회원사의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95TWh, 2030년까지 301TWh의 추가 전력이 필요함.
- ▶ 2023년 약 450개 기업은 46GW 규모의 태양광·풍력 PPA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였고, 가장 큰 시장은 미국(17.3GW), 두 번째로 큰 시장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유럽(15.4GW)임.
- ▶ 아시아에서는 RE100 조달 수단으로 PPA보다 비PPA(인증서 등)를 주로 활용함.

1. 글로벌 RE100 개요

- RE100(Renewable Electricity 100%)은 기업이 전력소비량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임.²⁾

- RE100 참여 기업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100% 달성을 목표로, 2030년까지 60%, 2040년까지 90% 이상의 실적 달성을 권고 받음.
- 참여 기업 대상은 연간 100G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 혹은 Fortunes지 선정 1,000대 기업 등 영향력 있는 기업임.
- 이행보고는 연 1회 CDP(Carbon Disclosure Project)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보고하고, CDP 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행실적을 공개함.
- 캠페인에는 메타(Meta), 구글(Google), 애플(Apple), 스타벅스(Starbucks) 등 2024년 7월 기준 총 433개의 글로벌 기업이 가입함.³⁾
- 국내 기업은 2024년 6월 기준 삼성, 현대, LG 등 36개 기업이 글로벌 RE100에 참여 중임.

“RE100은 기업이
전력소비량의
100%를
재생에너지로
조달하겠다는
자발적인 캠페인”

1) 본 내용은 The Climate Group과 CDP의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과 BNEF의 1H 2024 Corporate Energy Market Outlook의 주요 내용을 작성함.

2) RE100 정보 플랫폼

3) The Climate Group

〈 글로벌 RE100 개요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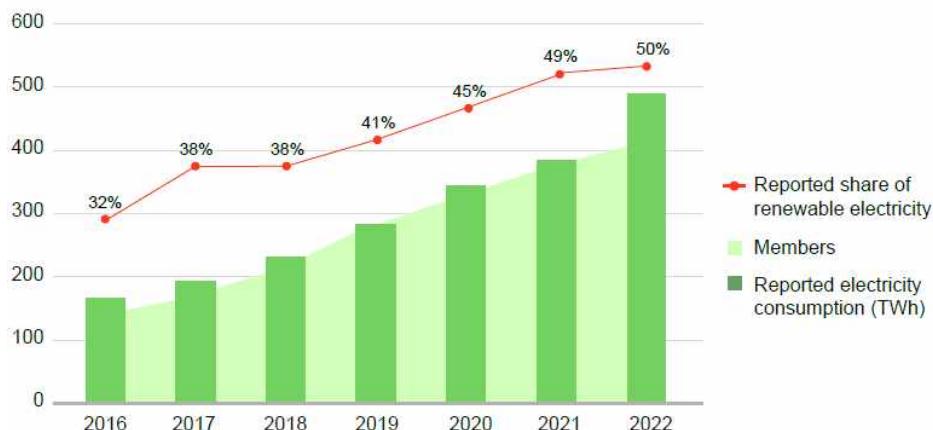
구분	내용
참여 대상	연간 100GWh 이상 전력 소비 기업 또는 Fortune지 선정 1000대 기업 등 영향력 있는 기업
이행 수단	인증서 구매, 전력회사와 녹색 전력 구매 계약 체결, PPA, 자가 설비 등
이행 목표	2050년까지 100%이행, 2030년 60%, 2040년 90% 이행 목표 설정 권고
이행 범위	전 세계 보유 사업장
이행 보고	연 1회 CDP에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보고
활용	글로벌 RE100 선언 및 대외 홍보

자료 : 한국에너지공단 발표자료, RE100 정보 플랫폼(최종접속일: 2024.07.17.) 재인용

“2022년 기준
RE100 회원사의
전력소비량은
481TWh로, 이중
재생에너지 비중은
50% 수준”

- The Climate Group and CDP에서 발간한 2024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RE100 가입 기업들의 전력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50%로, 이는 2016년 대비 18%p 증가한 수치임.⁴⁾
 - RE100 인증을 보고한 382개 기업이 2022년 사용한 전력 소비량은 481TWh로, 이는 전세계 전력 소비의 1.7%에 해당함.
 - 재생에너지 조달 규모는 전년 대비 30% 이상 증가한 240TWh를 달성함.
 - 주요 조달 방안은 재생에너지 인증서(41%), 전력구매계약(Power Purchase Agreement, PPA)(31%), 공급자와의 계약(Contract with Supplier)(24%)이 있으며, 2022년 아시아 지역 비중이 증가하면서 PPA 계약 비중이 처음으로 감소함.
 - 에너지원은 태양광 혹은 풍력 비중이 58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수력을 포함한 에너지 혼합(19%), 수력(14%), 미공개(7%), 기타(3%) 순임.
 - 79개기업(총 전력소비 91TWh)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% 조달 목표를 달성하였고, 48개 기업(총 전력 소비 44TWh)은 90% 이상의 재생에너지 조달 목표를 달성함.

〈 RE100 성장 추이(2016~2022) 〉



자료 : The Climate Group&CDP(2024) *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*, p. 4

4) The Climate Group&CDP(2024) *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*

〈 글로벌 RE100 조달 방안 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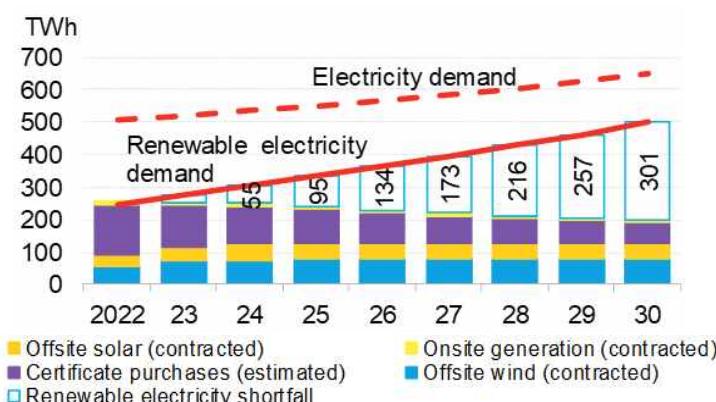
자료 : The Climate Group&CDP(2024) *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*, p. 16

2. 2023년 국제 RE100 현황과 단기 전망⁵⁾

- 2023년에 RE100 신규 가입 기업 수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37개 기업이지만, 캠페인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움.
 -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98개, 85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어, 해당 국가에서의 신규 회원 가입 속도가 특히 감소함.
 - 2023년 RE100 회원사의 연간 전력소비량은 전년 대비 27TWh로 증가한 508TWh로 신규 회원 가입 속도가 감소하더라도 총 전력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음.
- BNEF 전망에 따르면 RE100 회원사의 전력 수요는 2030년 650TWh에 도달하고, 재생에너지 비중은 76.8%로 499TWh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.
 -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 전망을 고려할 때 2025년에 95TWh, 2030년에 301TWh의 추가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 - 2030년 기준 지역별로는 미주(AMER) 132TWh, 아시아·태평양(APAC) 109TWh, 유럽·중동·아프리카(EMEA) 60TWh가 추가 보급될 필요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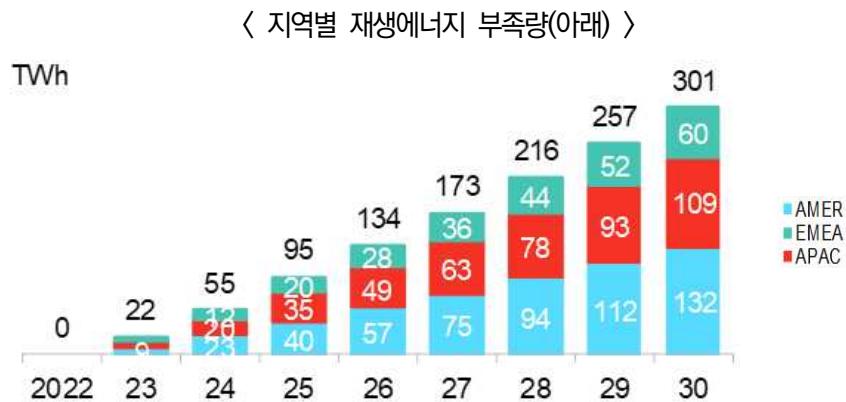
“RE100 전력
수요는 2030년에
650TWh까지
증가하고, 이중
재생에너지 비중은
76.8%로
전망(BNEF)”

〈 RE100 기업의 전력 수요 및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〉



자료 : BNEF(2024) *1H 2024 Corporate Energy Market Outlook*, p.6

5) 여기서는 BNEF의 1H Corporate Energy Market Outlook의 기업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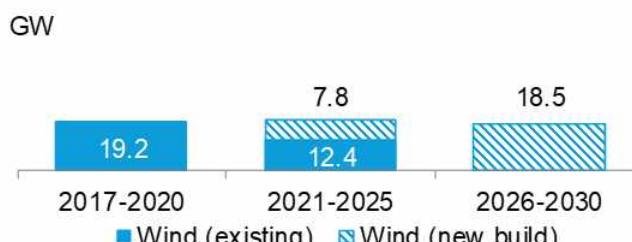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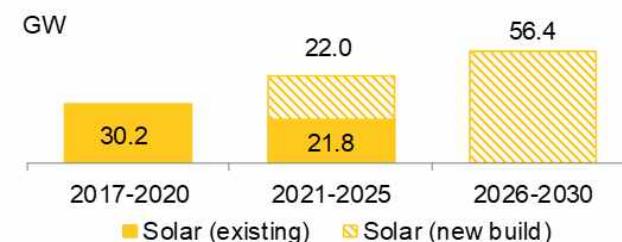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BNEF(2024) 1H 2024 Corporate Energy Market Outlook, p.6

“RE100 회원사의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105GW의 재생에너지를 추가 보급할 필요”

- 2030년까지 RE100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105GW의 재생에너지 추가 보급이 필요함.
 - ※ BNEF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수단으로 태양광과 풍력 PPA만을 가정함.
 - 동일한 가정으로 2025년까지는 태양광 22GW, 풍력 7.8GW의 추가 보급이 필요하고, 2026년~2030년까지는 태양광 56.4GW, 풍력 18.5GW의 추가 보급이 필요함.
 - 태양광을 풍력보다 더 많이 보급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선호도가 태양광이 높기 때문임.
 - 태양광 PPA 비중은 2017년 25%에서 2023년 68%로 43%p 증가함.
 - 2019년~2023년 체결한 PPA 중 태양광 비중은 62% 수준임.
 - BNEF 전망을 고려한다면 기업들은 2050년까지 매년 15GW의 PPA를 체결해야 함.

〈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(위) 및 풍력(아래) 수요 전망 〉



주 : 신규 발전의 57%는 태양광, 43%는 풍력으로 가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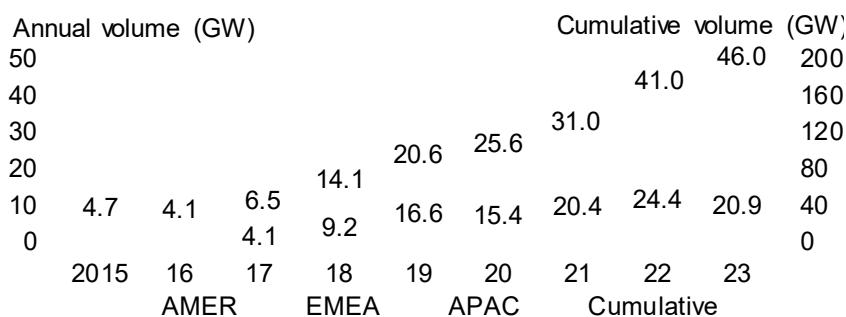
자료 : BNEF(2024) 1H 2024 Corporate Energy Market Outlook, p.6

3. 기업의 재생에너지 PPA 체결 동향⁶⁾

■ 국제 재생에너지 PPA 현황

- 2023년 약 450개 기업들은 46GW 규모의 태양광·풍력 PPA를 공개적으로 발표함.
 - 이는 전년보다 13% 증가한 수치로, 지난 7년간 기업 PPA 시장이 꾸준히 성장함.
 - 가장 큰 시장은 미국(17.3GW)이고, 두 번째로 큰 시장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유럽(15.4GW)임.
 - 세 번째로 큰 시장 아시아(10GW)는 2024년에 PPA 시장보다 비PPA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.

〈 지역별 기업의 재생에너지 PPA 규모 〉



주 : 온사이트(Onsite) PPA는 제외됨. AMER: 미주, EMEA: 유럽, 중동, 아프리카, APAC: 아시아 태평양

자료 : BNEF(2024) 1H 2024 Corporate Energy Market Outlook, p.6

- 기업별로는 아마존(8.8GW)의 계약규모가 가장 커고, 다음으로 메타(3GW), 리온델바셀(LyondellBasell, 1.3GW), 구글(1.0GW), 타타스틸(Tata Stell, 1.0GW), 알버트 하인(Albert Heijn, 0.8GW) 순임.
 - 아마존은 4년 연속 재생에너지 PPA 규모가 가장 큰 기업으로, 2023년 그 규모가 누적 33.6GW에 도달함.
 - 타타스틸(1.0GW)과 알버트하인(0.8GW)은 2023년 처음으로 PPA를 체결한 기업이지만, 상위에 랭크됨.

“2023년
태양광·풍력 PPA
규모는 46GW로,
기업별로는 아마존
계약 규모가 가장
크고, 다음으로
메타, 리온델바셀,
구글 순임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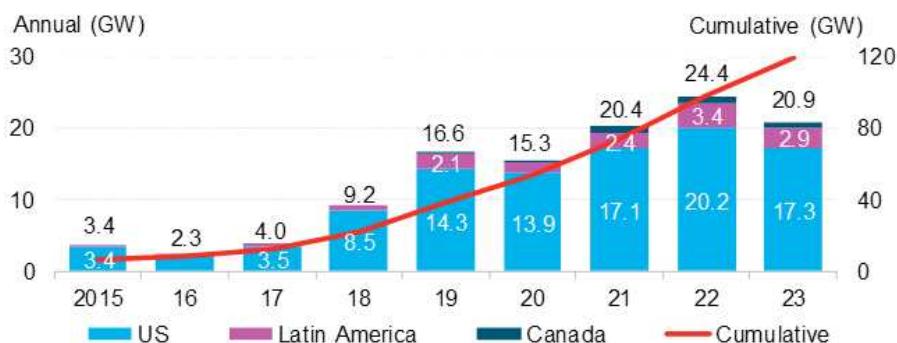
■ 미주 PPA 현황

- 2023년 미주 지역에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한 신규 PPA가 전년 대비 3.6GW 감소한 20.9GW를 기록함.
 - 미국에서는 14.2% 감소하여 17.3GW를 기록하고, 남미지역에서는 14.7% 감소하여 2.9GW를 기록함.

6) 여기서는 BNEF의 1H Corporate Energy Market Outlook의 시장별 동향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함.

- 미국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시장이 위축되었지만, 2024년에는 이자율 상승 제한, 공급망 우려 완화, 세제혜택 정책 발표 등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임.
- 남미에서는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PPA 계약이 감소하였으나, 브라질에서는 모든 고전압 고객이 쌍무계약(bilateral contract)을 체결할 수 있는 시장 자유화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 규모가 57% 증가함.

〈 미주 지역의 기업 재생에너지 PPA 규모 〉



“미국의
재생에너지 PPA
시장은 2023년
위축되었으나,
이자율 상승 제한,
공급망 우려 완화,
세제 혜택 등을
이유로 시장 개선
가능”

주 : 온사이트 PPA(Onsite PPA)는 제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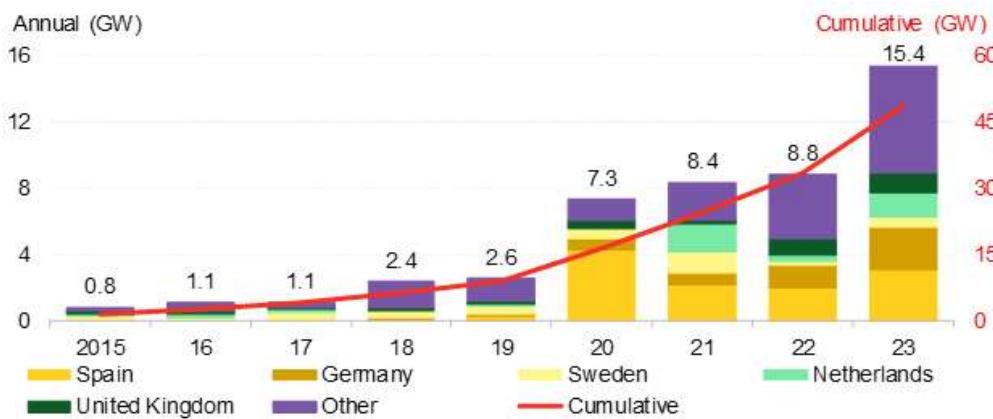
자료 : BNEF(2024) 1H 2024 Corporate Energy Market Outlook, p.10

- 2023년 미국에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PPA 시장이 위축되었으나, 향후 시장이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음.
 - 미국에서는 이자율 상승, 고가의 장비 가격, 그리드 제약(grid constraints) 등의 이유로 PPA 가격이 4% 상승함.
 - 기업들은 PPA 가격 상승 대비 전기 가격은 상승하지 않아 PPA 계약 체결을 지연하고, 시장이 재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음.
 - 2023년에는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(45X tax credits)과 수소 세제 혜택(45V hydrogen tax credits) 등 새로운 지원이 발표되어, 향후 PPA 가격이 하락하길 기대함.
- 2023년 남미 지역의 재생에너지 PPA 규모는 2.9GW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역대 두 번째로 큼.
 - 브라질에서는 총 2.4GW의 PPA가 체결되어 그 규모가 가장 크고,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0.2GW, 칠레 0.1GW, 멕시코 30MW 순임.
 - 브라질에서의 PPA 계약 체결 규모 증가는 전력 시장 자유화로 PPA의 쌍무계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임.
 - 브라질에서는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알브라스(Albras)와 아틀라스 리뉴어블(Atlas Renewables)이 767MW의 태양광 PPA를 체결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함.
 - 2023년 두 번째로 큰 계약은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(ArcelorMittal)과 카사 도스 벤투스(Casa dos Ventos)의 풍력 PPA로 554MW를 기록함.

■ 유럽, 중동, 아프리카 지역(EMEA) PPA 현황

- 2023년 EMEA 지역 기업들의 태양광·풍력 PPA 실적은 15.4GW로 전년 대비 75% 증가함.
 - 기업들은 24개 국가에서 244개의 PPA를 발표하였고, 평균 규모는 63MW 수준임.
 - 유럽 지역에서 PPA 가격은 2023년 상반기에 풍력의 경우 7%, 태양광의 경우 6% 하락함.
 - 2023년 1.2GW의 해상풍력 PPA가 네덜란드에서 체결되었고, 앞으로 해상풍력 PPA에 기업들의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 - 2015년 이후 EMEA에서 체결된 PPA는 총 48GW로, 이는 네덜란드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임.

〈 EMEA 지역의 기업 재생에너지 PPA 규모 〉



“유럽에서는 높은 전기 가격, 재생에너지 공급망 회복,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PPA 시장이 전년 대비 75% 증가하여 15.4GW에 도달”

주 : EMEA는 유럽, 중동, 아프리카를 의미함. 온사이트 PPA(Onsite PPA)는 제외함.
자료 : BNEF(2024) 1H 2024 Corporate Energy Market Outlook, p.18

- 유럽에서는 높은 전기 가격, 재생에너지 공급망 회복,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기업의 재생에너지 PPA 시장 규모가 증가함.
 - 기업들은 스페인, 독일, 스웨덴 등 기존 PPA 시장을 선호함.
 - 네덜란드는 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뒤 개발자의 PPA 체결 유인이 증가하면서 해상풍력 PPA 확대가 기대되는 시장임.
- 스페인은 2023년에 3GW의 PPA가 체결되면서 4년 연속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을 기록함.
 - 스페인의 개발자는 전체 지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의 태양광(51.5유로/MWh)과 풍력(57.5유로/MWh) PPA를 제공함.
 - 스페인 정부는 2023년 7월 국가 경제 및 기후 계획(National Economic and Climate Plan)을 발표하였고, 여기서는 2030년까지 총 85GW의 태양광 및 풍력 추가 보급 계획을 포함함.

**“유럽에서
스페인은 PPA
가격이 가장 낮은
시장이고, 독일은
해상풍력 PPA
확대가 기대되는
시장”**

-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로, 앞으로 몇 년 동안 개발자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태양광 및 풍력 PPA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임.
- 아마존, 리온델바젤(LyondellBasell), 이퀴닉스(Equinix), 화이자(Pfizer)는 유럽 전체 영역을 커버하는 재생에너지 PPA를 스페인에서 체결함.
- 2023년 기업 재생에너지 PPA의 두 번째로 큰 유럽 시장은 독일로, 2.6GW의 거래가 체결됨.
 - 벤츠(140MW), 잘츠기터(Salzgitter, 114MW), 독일 국철(Deutsche Bahn, 70MW)을 포함한 20개의 기업은 해상풍력 PPA를 발표함.
 - 독일의 해상풍력 입찰을 낙찰받은 BP, 토텔에너지, RWE, 룩스카라(Luxcara)는 PPA를 체결한 기업을 찾고 있어, 앞으로 해상풍력 PPA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임.
 - BNEF는 2030년까지 독일의 누적 해상풍력 용량이 21.6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- 2023년 네덜란드에서 기업들은 전년 대비 300% 이상 증가한 1.4GW의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함,
 -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 사이에 네덜란드의 육상풍력과 태양광 PPA 가격은 각각 5.3%와 5.6% 하락함.
 - 네덜란드의 개발자들은 PPA 대신 보조금(SDE+)을 선호하면서 PPA 시장은 침체기를 겪으면서, 2022년 PPA 거래량은 316MW를 기록함.
 - 2023년 개발자들은 보조금 정책 개편(SDE++), 전기 가격 상승, 대기 중인 다수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PPA를 선택함.
 - 2023년에 체결한 PPA 거래 중 85.7%는 Google, 알버트 하인(Albert Heijn), 에어리퀴드(Air Liquide)가 체결한 5개의 해상풍력 PPA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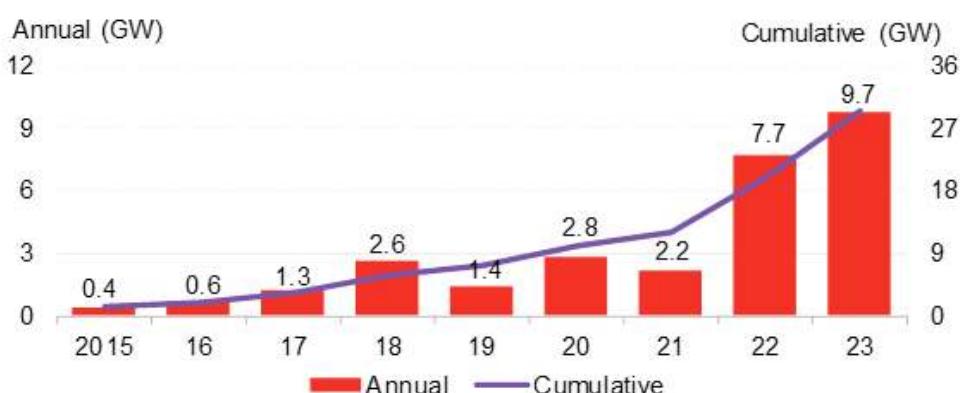
■ 아시아 태평양 지역 PPA 현황

-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PPA 시장은 2023년에 26% 성장하여 9.7GW에 도달함.
 - 인도의 재생에너지 PPA 시장은 3.7GW로 아시아 시장을 주도함.
 - 호주의 PPA 시장 규모는 1.1GW이고, 이중 97.7%는 태양광임.
 - 한국과 일본의 PPA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한 945MW와 500MW임.
 - 베트남은 향후 몇 년간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직접(Direct) PPA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임.
-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PPA 시장보다 다른 형태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구매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.

- 일본에서는 기업 수요 증가와 인증서 가격 하한선 하락으로 청정에너지 인증서가 8.5TW 판매됨.
- 중국의 녹색 전력 거래는 2023년 49TWh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함.
-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 - 베트남은 2024년에 직접 PPA 메커니즘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됨.
 - 한국 기업들은 영국과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 시행되기 전에 RE100 활동을 늘릴 것으로 기대됨.

“아시아·태평양
지역에서 RE100
조달 수단은 PPA
보다 인증서를
주로 활용”

〈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기업 재생에너지 PPA 규모 〉



주 : 여기서는 오프사이트(offsite) PPA와 제3자 PPA만 포함하고, 호주의 슬리브드(sleeved) PPA는 제외함.

자료 : BNEF(2024) 1H 2024 Corporate Energy Market Outlook, p.18

○ 호주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, PPA 시장 발전은 늦은 편임.

-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30GW의 풍력·태양광 프로젝트 중 73% 이상이 PPA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, 대부분 에너지 소매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음.
- 에너지 회사가 전력을 이미 구매하고 고객을 대신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소매업체 지원 PPA는 전통적인 기업 PPA보다 더 보편적인 모델로 확산함.

○ RE100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 중국은 2024년에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, 몇 가지 위험 요인은 있음.

- 2024년 중국의 RE100 시장 성장 동력은 공급 증가와 녹색 전력 가격의 하락임.
- 그러나 명확한 가격 책정 및 실행 메커니즘 부족, 국가 배출권 거래제와의 불일치 등 시장 잠재량 극대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음.

○ 인도에서는 기술 및 소재 분야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PPA를 주도함.

- 가장 큰 거래는 아마존이 바이브랜트에너지 홀딩스(Vibrant Energy Holdings)와 198MW의 풍력 PPA를 체결한 것이고, 다음으로는 퍼스트 솔라의 167MWM의 태양광 PPA임.

- 일본에서는 85개 기업이 글로벌 RE100에 참여함.
 - BNEF는 2023년에 일본에서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와 정부 보조금 덕분에 기업 PPA 시장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힘.
 - 또한, 일본은 현재까지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경매에서 계약함.
- 베트남에서는 직접(Direct) PPA(DPPA) 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,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RE100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 - 2023년 10월 베트남 산업무역부(MOIT)는 DPPA 초안을 발표하고 10MW 이상의 발전 사업자와 22kV 이상의 전압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고객 간의 차액 계약(CfD) 메커니즘을 제안함.
 - 전력 소비를 위해 고객은 국영 유털리티인 베트남 전기(Vietnam Electricity, EVN)의 소매 자회사에 현물 전력 가격과 송전 및 배전 요금 등을 합한 금액을 지불해야 함.
 - 이러한 요금은 미국의 녹색 요금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며, 2023년 6월에 비준되고 2024년 7월부터 발효되는 베트남 수정 가격법에 통합함.
 - 그러나 이러한 송전 및 배전 요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명확하지 않음.
 - DPPA가 통과될 경우, 이는 수정된 가격법이 2024년 7월에 발효된 후에만 시행 될 것임.
 - MOIT가 필요한 DPPA 요금을 규제하기 위해 수정된 가격법을 근거로 삼기 때문임.

참고문헌

- BNEF(2024), *1H 2024 Corporate Energy Market Outlook*
RE100 정보 플랫폼, https://www.k-re100.or.kr/doc/sub1_1_1.php (최종접속일: 2024.07.17.)
- The Climate Group 홈페이지, <https://www.there100.org/re100-members> (최종접속일: 2024.07.17.)
- The Climate Group and CDP(2024)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

(참고) 국가별 RE100 조달 수단

국가	재생에너지 비중 (수력 제외)	소매 전력 구매 가능 여부	재생에너지 인증서 유무	넷 미터링	온사이트 (Onsite) PPA	오프사이트 (Offsite) PPA
아르헨티나	33%(5%)	○	X	○	○	○
호주	24%(18%)	주별 상이	○	X	○	○
브라질	82%(18%)	○	○	○	○	○
불가리아	35%(21%)	○	○	X	○	○
캐나다	68%(9%)	주별 상이	○	○	○	주별 상이
칠레	44%(17%)	○	○	○	○	○
중국	28%(10%)	주별 상이	○	○	○	주별 상이
콜롬비아	79%(1%)	○	X	○	○	○
덴마크	80%(80%)	○	○	○	○	○
이집트	11%(5%)	○	○	○	○	○
에스토니아	78%(77%)	○	○	X	○	○
핀란드	50%(31%)	○	○	X	○	○
프랑스	22%(10%)	○	○	○	○	○
독일	52%(49%)	○	○	X	○	○
그리스	26%(18%)	○	○	○	○	○
인도	20%(9%)	주별 상이	○	주별 상이	○	○
인도네시아	20%(12%)	X	○	○	○	X
이탈리아	34%(21%)	○	○	○	○	○
일본	21%(12%)	○	○	X	○	○
요르단	14%(14%)	○	○	○	○	○
말레이시아	15%(1%)	X	○	○	○	○
멕시코	17%(8%)	○	○	○	○	○
노르웨이	98%(5%)	○	○	X	○	○
필리핀	23%(12%)	○	○	○	○	X
루마니아	40%(22%)	○	○	○	○	○
사우디아라비아	0%(0%)	○	○	○	X	X
싱가포르	4%(4%)	○	○	○	○	○
남아공	8%(7%)	X	○	○	○	○
한국	8%(7%)	녹색프리미엄	○	○	○	○
스웨덴	60%(22%)	○	○	X	○	○
태국	15%(13%)	X	○	○	○	X
터키	44%(15%)	○	○	○	X	X
UAE	2%(2%)	에미리트별 상이	○	○	X	X
UK	41%(38%)	○	○	X	○	○
미국	19%(13%)	주별 상이	○	주별 상이	○	○
베트남	49%(13%)	X	○	○	○	준비중

자료 : BNEF(2024) 1H 2024 Corporate Energy Market Outlook, p.8~9.